

연상호 감독이 본 '돼지의 왕'... "김동욱 사려깊은 연기 감탄"

애니메이션 감독 시작, 드라마·영화·온라인동영상서비스까지 활약
국내 장편 애니메이션 사상 처음 '칸영화제 초청' 작품성 인정 받아

연상호 감독은 창작자로서 '고정관념을 갖지 말자'는 주이다. 애니메이션 감독으로 시작해 드라마·영화·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까지 넘나들며 활약하고 있다. 직접 극본을 쓰고 연출도 하지만, 자신의 애니메이션 '돼지의 왕'을 드라마화하는 데는 탁재영 작가 힘을 빌렸다. 애초 드라마로 만들기에 내용이 부족했는데, 스티븐을 가미해 재미를 극대화했다.

18일 공개한 티빙 드라마 '돼지의 왕'은 20년 전 친구 메시지와 함께 시작된 의문의 연쇄살인으로 인해 폭력의 기억을 깨는 '황경민'(김동욱) 이야기다. 김성규와 채정안은 형사 '정종석' '강진'으로 분했다. 원작은 국내 장편 애니메이션 사상 처음으로 2012년 칸영화제 감독주간에 초청, 작품성을 인정 받았다. 연 감독은 직접 연출하지 않았지만 "2회까지는 같이 얘기하면서 극본을 썼다. 원작에 없는 진아 캐릭터도 처음에 만들면 좋겠다고 얘기했다"며 "오히려 제작사 히든윙스에 2회까지 극본을 전달한 뒤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마지막 회 극본도 최근에 봤다. 원작 메시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동욱의 사려 깊은 연기를 보며 감탄했다. 본인 역할을 장르적으로 뽐낼 뿐만 아니라,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해 죄의식까지 표현했다. 사려 깊은 생각을 하면서 연기한 게 느껴졌다. 김성규는 후반부에 더 큰 감정

이 보여질 것 같아서 기대된다. 두 사람 연기 만으로도 영화 보는 느낌이 들었다. 캐스팅 소식을 듣고 기뻐했던 기억이 난다. 드라마는 연쇄살인극과 수사극이 섞여 색다르게 볼 수 있다. 애니메이션과 달리 생생한 배우들의 연기도 차별적이다."

탁재영 작가는 '원작 메시지와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을까?' 우려했다. "원작은 과거 끔찍한 사건을 겪은 이들의 현재 파편한 삶을 보여주고 과거 어떤 일이 있었는지 회상했다"며 "드라마에선 이들이 성인이 돼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변했는지 초점을 맞췄다"고 귀띔했다. "원작 메시지가 의미 있어서 시간이 흘러도 머릿속에 떠올랐다"며 "굳이 그 좋은 메시지를 바꿀 필요는 없었다. 좀 더 재미있게 보여주는 게 내 의무였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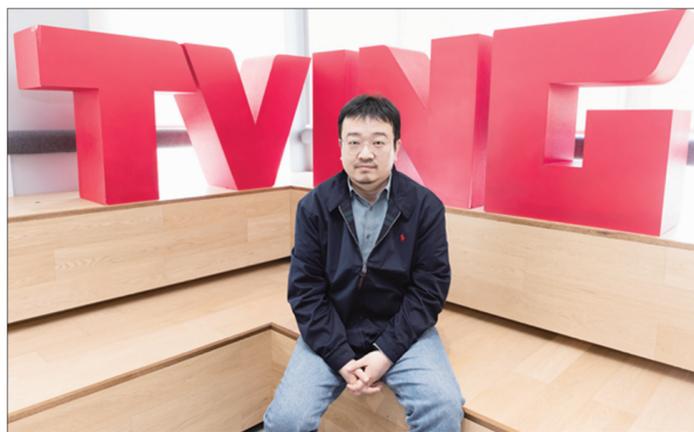
'돼지의 왕'은 중학생 시절 학교 폭력 기억을 되짚으며 이야기가 전개됐다. 4회까지 공개한 상태인데, 학폭 장면이나 경민이 복수하는 장면은 다소 잔혹했다. 심리치료사 상담을 통해 여배우들이 상처를 입지 않도록 배려했다. "나도 학교 다닐 때 중학생 시절 가장 많은 폭력이 벌어졌다"며 "솔직하게 다루고 싶었다. 안 그러면 가짜가 되고, 시청자들에게 거짓말하는 것 같았다. 안정적인 촬영 환경이 조성 돼 좀 더 솔직한 얘기를 할 수 있었다"고 했다.

탁 작가는 OTT 장점을 활용해 자기검열없

이 자유롭게 극본을 썼다. "이런 상황, 캐릭터, 액션 등이 '지상파에서 가능했을까?' 싶다"고 할 정도다. '어른들의 스티븐'이라고 생각, 19세 이상 관람가로 설정했다. 초반에는 폭력이 적나라해도 "의미를 잘 전달하기 위해 리얼하게 가자"고 마음 먹었다. "학폭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복수하면서 연민과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며 "5-6회 이후부터 '경민의 사적인 복수가 정당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는 도덕적 딜레마를 느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학교 폭력을 소재로 한 작품은 수없이 많았다. 실제 사회에서도 여전히 학폭 문제는 지속되고 있다. 탁 작가는 "돼지의 왕은 단순히 학폭만 다루지 않는다"며 "좀 더 근원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왜 강자와 약자로 서열을 나누고, 그 사이에는 폭력이 존재하는지?' 묻는다. 이런 큰 주제를 다루기 위해 학폭이라는 소재가 필요했다. 초반에는 학폭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중·후반부로 갈수록 더 큰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전에도 학교폭력 문제 얘기를 많이 했다. 성과주의를 중시하는 사회 풍조와 학생들에게 학교라는 공간이 전부인 세계가 문제라고 생각했다. 학교는 한 사람이 경험하는 세계의 일부인데, 그런 점이 학폭을 키웠다. 어른이 되어서도 어떤 사람이 지배하는 세계가 너무 하나로 돼 있는 게 문제다. 앞으로 사회가 나아지기 전에 개인으로서 먼저 극복하려



면 '지금 겪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연 감독)

연 감독은 작품에 항상 사회적인 메시지를 녹였다. 넷플릭스 드라마 '지옥'(2021)을 비롯해 영화 '부산행'(2016) '염력'(2018) '반도'(2020) '방법: 재차의' 등이 그랬다. 최근에는 혐오를 통해 이데올로기가 형성되는 과정에 관심을 갖고 있다. 지난해 지옥으로 해외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미국에 있는 친구가 돼지의 왕을 봤다고 하더라. 학교에서 따돌리는 행위 등이 미국에서도 흔히 있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고 했다. 내가 사는 세상에서 작품 소재를 찾으려고 노력한다. 반응을 보며 내가 사는 세상이 다른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낀다"고 털어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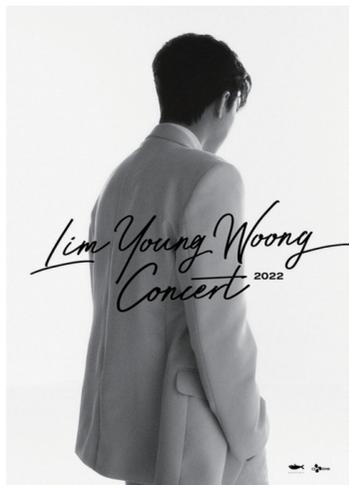
"한국 학생들에게는 학교가 전부다. 아침부터 밤까지 학교에서 90% 생활하지 않느냐. 학교가 늦게 끝나고 집에서는 잠만 자 가정

의 역할이 줄 수밖에 없다. '학교에서 왕따는 세상의 전부일 수 있겠다' 싶더라. 한 커뮤니티에 올린다는 것보다 여러 커뮤니티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은 한 커뮤니티에 올린 해 폭력에 노출되기 쉬운 구조다.

특히 예술하는 분들이 '올인해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될 수 있으면 많은 커뮤니티로 분배해 상처, 기쁨 등을 보완해야 한다."(연 감독)

탁 작가는 돼지의 왕이 학폭 가해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길 바랐다. 극중 학폭 피해자들은 20년이나 상처를 갖고 살아가는데, 가해자들은 학창 시절의 즐거움 추억으로 생각해 공분하는 시청자들이 적지 않았다. "어렸을 때 한 번쯤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 않느냐"면서 "누군가에게는 장난일지 모르겠지만,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았으면 한다"고 했다.

임영웅, 데뷔 6년 만에 첫 전국 투어



가수 임영웅이 데뷔 6년 만에 첫 단독 전국 투어를 돈다.

30일 소속사 물고기뮤직에 따르면, 임영웅은 오는 5월6일 고양을 시작으로 창원, 광주, 대전, 인천, 대구 그리고 서울로 이어지는 총 21회 규모의 투어를 진행한다.

2016년 '미워요/소나기'로 데뷔한 임영웅은 2020년 초 TV조선 '미스터 트롯' 출연 이후 스타덤에 올랐다.

작년 12월 KBS가 송년특집으로 마련해준 단독 콘서트 '위어 히어로(We're HERO)'는 시청률 16.1%를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누렸다. 최근 종영한 KBS 2TV 주말 드라마 '신사와 아가씨' OST '사랑은 늘 도망가'도 음원 차트도 석권했다.

투어 직전인 5월2일 첫 정규 앨범도 발매한다.

임영웅 전국투어 콘서트 티켓 예매는 내달 7일 목요일 오후 8시 고양 콘서트를 시작으로 인터넷 예매 사이트 예스 24를 통해 오픈된다.

조혜련 "이경규·예림 보면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나" 눈물



개그맨 조혜련이 마음 속 이야기를 털어냈다. 지난 29일 방송된 MBC 예능프로그램 '호적메이트'에서는 이경규·예림 부녀가 조혜련을 만나 식사를 대접했다.

예림의 결혼식에서 '아나까나' 축가로 화제를 모았던 조혜련에게 고기를 대접하기로 한 것. 이들은 식사를 하며 결혼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한창 이야기를 이어가며 다양한 결혼 생활을 팀을 전수해주던 조혜련은 두 사람을 말없이 바라보더니 "두 사람이 정말 부럽다"고 말했다고 이경규는 의아해 했다.

MBC 예능프로그램 '호적메이트'

이어 그는 "나는 두 사람을 보면서 반성하게 되고 또 후회하게 된다"고 말했고 이경규는 "뭘 후회하느냐"고 다시 물었다.

이에 조혜련은 "우리 아빠가 살아있었을 때 내가 이 두 사람처럼 아빠 잔도 받아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좀 후회도 되고 사실 많이 부러웠다. 살아 계셨을 때 아빠 이야기 좀 잘 들어줄 걸 아빠의 진심을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아빠를 떠나보내서..."라며 눈물을 보였다.

그러면서 "예림이와 경규 오빠 사이에 살아가는 표현이 없어도 둘 사이의 단단한 사랑을 느꼈다. 이제 한 남자의 아내가 되었지만 여전히 아빠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이지 않느냐. 앞으로라도 계속 아빠와의 이런 시간을 내주었으면 좋겠다"라며 따뜻한 조언을 건넸다.

조혜련의 진심에 예림이도 함께 눈물을 흘리는 한편 이경규는 잠시 우는 척 안경을 벗었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얼굴을 드러내 개그맨다운 마무리로 웃음을 자아냈다.

'KBS 드라마스페셜 2021' 다음달 앙코르 편성

'KBS 드라마스페셜 2021'이 국내외 수상 기념으로 4월 한 달간 특별 편성된다.

30일 KBS는 "'드라마스페셜 2021' 10편의 작품 중 시청률과 화제성 면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 세 편을 선정해 오는 4월2일부터 방송한다"고 밝혔다.

'KBS 드라마스페셜'은 지난해 'TV 시네마' 4편을 공개했다. OTT 웨이브/BTV 선공개와 극장 배급, 강릉국제영화제 월드 프리미어 부문 출품도 병행했다. 다양한 시도 끝에 'TV시네마-사이렌'은 스톡홀름 필름 & TV페스티벌(Stockholm Film & TV Festival)에서 장편영화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TV시네마-희수'는 Korea UHD Award 2021에서 드라마 부문 최우수 작품상을 받았다. SF 미스터리 스릴러 '사이렌'은 오는 4월2



일, SF 공포물 '희수'는 4월9일, 문근영·조한선 주연 '기억의 해학'은 4월23일 오후 10시 35분 KBS 2TV에서 방송된다.

가수 김준수·김재중, 日 드라마 주제곡 듀엣... '육등성'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와 가수 겸 배우 김재중이 일본 드라마의 주제곡을 함께 부른다.

30일 김준수 소속사 팜트리아일랜드에 따르면, 김준수와 김재중은 오는 4월13일 첫 방송 예정인 일본 NTV 수요 드라마 '악녀~일하는 것이 멋지지 않다고 누가 말했어?~(女(わる) ~働くのがカッコいなんて誰が言った?)'의 주제가 '육등성(六等星)'으로 호흡을 맞춘다.

후쿠미 준의 만화가 원작인 드라마는 긍정적이고 밝은 신입사원과 수석끼리의 선배가 출세를 목표로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다. 이마다 미오가 주연을 맡았다.

예규치 노리코, 스즈키 노부유키, 타카하시 후미야, 무카이 오사무 등 현지 인기스타들이 총출동한다. 주제곡 제목 '육등성'은 육안으로 보이는 가장 어두운 별을 가리킨다. 김준수와 김재중의

목소리가 어우러지는 발라드곡이다. 김준수와 김재중은 '동방신기'와 'JYJ' 활동을 함께 하며 일본에 두터운 팬덤을 형성했다.

김준수는 "일본에서 새로운 곡을 내는 것은 정말 오랜만인 것 같다. 그것도 인기 드라마의 주제가로는, 저 또한 굉장히 설레는 그런 마음이 들었고, 무엇보다 오랜만에 재중형과 함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돌이켜 정말 즐겁게 재미있게 작업했던 기억이 나기에 많은 분들께서 기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육등성'은 정말 좋은 곡"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준수와 김재중은 이날 오후 7시부터 방송되는 일본 음악 프로그램 '프리미엄 뮤직(Premium Music) 2022(プレミアムミュージック2022)'에서도 함께 노래한다. 이날 '육등성'을 처음 공개한다. 한편 김준수는 오는 4월1일 서울 중구 충무



아트센터에서 개막하는 뮤지컬 '데스노트'에 출연한다. 김재중은 신곡을 준비 중이다.